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5. 01	05. 08	05. 15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노지민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4월 축복인사 -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성도 간에)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걱정하지마!(자신에게)

1. 역라마단 운동 - 라마단 기간(4월2일~5월1일) 동안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 4월 생일 - 김에스더 자매
3. 나눔의 시간 - 이상호 목사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4. 마스크 착용 - 예배시간 마스크 착용은 자율 선택입니다(5월부터).
5. 코로나 대응 - Luca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십일조	
부활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26장 다같이
 기 도 Gebet 장래황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1 : 10 - 14(구p968) 장래황 성도
 (Jesaja 1:10-14)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하나님의 가슴앓이!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기도제목

1.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역라마단 기도를 통해 이슬람 형제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상태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스스로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계속 더럽혀지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짓 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다가 결국 이방인에게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그들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곳에 안주했습니다. 본토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놓아두면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과 메대, 바사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갈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과 삶의 목적인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장차 볼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 박순용 목사
 (하늘영광교회 담임)

*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은 모두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의미 있게 전개되는 것이다. - Robert Wright(미국 작가) -